

## 노베와 노의지의 관계

고2 문과생입니다. 명문대 수학과에 입학한 형에게 수학 잘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.

“일차함수의 이해와 활용, 이차함수의 이해와 활용,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?”  
우물쭈물했죠.

“중1부터 <수학 1>까지의 함수의 개념이야.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중학교 과정부터 기초를 다져야 해.” 심화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고2 겨울방학에 중학 수학이라니?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저에게 형은 이 한마디를 남겼어요. “노베의 동의어가 노의지야. 그것만 기억해.”

## 인강씨! 그러면 안 되지 말입니다

전 과목 기초가 부족한 고입니다. 학원을 알아보던 중 ‘내신과 수능 한 번에 잡는’ ‘기초 4주 완성’ ‘노베를 위한 〇〇 강좌, 〇〇〇 강사’ 라는 인강 광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무엇보다 실제 인강을 통해 성적이 올랐다는 후기를 보니 저도 금방 성적이 오를 것 같았어요. 하지만 과목별 첫 수업에서 알게 됐어요. 그들이 말하는 기초와 노베는 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. “인강씨, 노베도 서러운데 좌절까지 맛보게 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. 앞으로는 노베의 기준을 분명히 밝혀주세요.”



## ‘노베’의 동의어는 ‘노의지’(?)

‘노베’는 ‘노 베이스’의 줄임말로 기초가 없다는 뜻입니다. 학습 카페에 들어가보면 ‘노베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?’ ‘노베인데 좋은 참고서나 학원 좀 소개해주세요.’ ‘노베인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?’ 등 노베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. 노베라며 자신을 낮추는 말 속에는 좀 더 잘하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. 노베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, 함께 들어볼까요?

취재 김지민 리포터 sally0602@naeil.com

< 노베라서 고민인 학생 방 4

오후 3:35

## 1등이 노베라니!

1학기 때 일이에요. 3월 학력평가를 치르고 ‘멘붕’에 빠졌죠.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났지만 짝이었던 친구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어요. 그런데 그 친구도 국어 완전 망쳤다며 자기는 완전 국어 노베라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노베라는 말도 그 친구에게 처음 들었거든요. 하지만 얼마 뒤 학력평가 성적표를 받고 배신감을 느꼈답니다. ‘국어 노베’라며 엄살떨던 그 친구가 우리 반 1등이더라고요. 1등이 노베라면 저는 지하 10층쯤 되려나요?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고 좋아했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.

## 내가 왜 노베야?

국어는 2~3등급, 영어는 3~4등급을 왔다갔다 해요. 탐구도 5등급을 넘지는 않아요. 사실 탐구 과목은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지 않았으니 온전히 제 실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? 앞으로 열심히 할 예정이니 이제 성적 오를 일만 남은 거죠. 그런데 엄마는 기분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라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저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된답니다. 저는 9등급보다도 훨씬 위인데 노베라니요? 저는 그저 노력이 좀 부족한 뿐이랍니다. @